



들연한 분화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일본 온타케산 정상에서 29일 하얀 가스와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온타케산을 오르던 중 분화를 만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등산객들은 돌덩이가 떨어지고 화산재가 비처럼 내려 마치 지옥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연합뉴스

# 日 후지산도 터지나

## 분화 가능성 배제 못해...온타케산 화산성 미동 다시 증가

일본 온타케산(御嶽山·3067m)의 화산성 미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후지산 분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이 관측한 온타케산 화산성 미동의 진동 폭은 이번에 분화를 시작한 첫날인 27일과 비슷한 수준인 1초당 0.02 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로 늘어났다. 온타케산의 화산성미동 진동 폭은 27일 오전 11시52분 초당 0.21μm까지 치솟았다. 진동 폭은 이후 하향했으나 29일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 29일 온타케산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하루 1000t 수준으로 전날의 두 배로 늘어 난 것으로 관측되는 등 화산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NHK는 화산성 미동의 진폭이 커지면 27일 분화를 시작할 때와 비슷한 규모의 분화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상청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각변동 등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그마 자체가 분출할 징후는 없지만 27일과 마찬가지로 수증기 폭발에 의한 분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오후부터는 돌발적인 수증기 분출 등의 진동으로 공기가 흔들리는 '공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또 후지산(富士山)의 분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화산분화예지(預知)연구회 회장인 후지이 도시쓰구(藤井敏嗣)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이번에 온타케산에서 발생한 수증기 폭발형 분화가 후지산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킨 지 300년이 지난 사실을 거론하며 분화 가능성이 있지만, 수증기 폭발형 분화는 어느 화산이라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

다. 또 "많은 이들이 산에 오르는 시기에 정상 부근에서 일어난다면 작은 분화라도 큰 피해를 낼 것이며 사람이 거의 없는 시기에 서쪽에서 분화한다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후지가 명예교수는 수증기 폭발형 분화는 대미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난점으로 꼽았다. 한편 온타케산 분화에 따른 사망자 중 다수가 분화 때 튀어나온 돌(분석·噴石)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온타케산 분화와 관련,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된 36명 가운데 전날까지 의사에 의해 사망이 확인된 12명 중 9명의 사인이 분석에 직격탄에 따른 다발성 외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3명도 외상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 홍콩 시위 나흘째...中 국경일 맞아 긴장 고조

## 시위대, 점거 지역 확장...중국 "양보는 없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점거 시위가 1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경일 연휴를 맞아 시위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시위대의 점거 지역도 넓어지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학민사조(學民思潮)를 이끄는 조슈아 왕(黃之鋒) 등 시위대 수백 명은 이날 오전 국경일 국기 게양식이 거행된 완차이 골든 보히니아 광장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시위대는 국기가 게양되는 동안 국기

양대에서 등을 돌린 채 노란 리본을 묶은 손을 들어 엑스자 표시를 만드는 등 침묵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중 20여 명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평화 시위를 원하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만류로 경찰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매체가 전했다. 령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이 행사장에 참석하자 일부 시위대는 홍콩에서 사용하는 광둥화(廣東話) 대신 중국 표준말인 푸통화(普通話)로 "퇴진 689"라고 외치기도 했다. 689는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로 진행된 201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1200명의 선거위원 중 령 장관에게 지지표를 던진 선거위원 수를 의미한다. 일부 친(親) 중국 성향 군중은 "령춘잉을 지지한다"고 외쳤다. 도심 점거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센터럴을 점령하라' 지도부에는 살해 위험 낙서가 된 팻지붕 등치가 배달되기도 했다. 전날 시위대는 국경일 연휴를 앞두고 시위 참가자가 늘어나자 점거 지역을 까우룽(九龍)반도 침사추이(尖沙咀) 등으로 확장했다. 케이 체(謝安琪)와 안토니 원(黃秋生) 등 홍콩 연예인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중국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홍콩 시위대의 동력이 약화하기를 바라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 사과, 비만 막아줘요

## 장내 유익균 증식 성분 많아



사과에 비만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식품과학대학의 줄리아나 노라도 박사는 사과, 특히 그레니 스미스(Granny Smith) 품종의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생물활성 성분이 장(腸)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체중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소화가 어려운 사과의 이러한 성분들은 입에서 씹히고 위산과 소화효소에 노

출된 후에도 대장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남아 유익균의 영양소가 된다고 노라도 박사는 밝혔다. 이 성분들은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돼 부티르산(butyric acid)이 생성되면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만한 사람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데 이 성분들이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회복시켜 비만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식품화학'(Food Chemistry) 10월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 미국내 에볼라 감염 환자 첫 발생

## 라이베리아서 귀국 후 증세

미국 내에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처음 나왔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CDC는 미국 델라웨어의 텍사스건강장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와 유사한 증세를 검사 받은 한 환자가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의사 등이 라이베리아 등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아 미국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완쾌된 뒤인 경우를 몇 건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 에볼라에 감염됐다는 확진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에볼라가 창궐하는 서아프리카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에볼라 감염 진단을 받은 첫 경우이기도 하다.



이 환자는 최근 라이베리아에 여행을 갔다가 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귀국한 채 텍사스 지역으로 갔다가 에볼라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 용봉동 도나우타운

문의062 **264-7789**

시흥 | 주 | 심산건설 | 시흥 | 주 | 구산건설 | 연평대 | 주 | 이오스 | 30층 | 2인1실

전용면적 **59㎡**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오피스텔 **김장훈 팬사인회** 10월17일 OPEN

- 입주 전 베이커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풍향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식욕실(인형) 방개 및 주방 확장형
- 애완견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인방 불박이장 설치 홈 오토시스템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용봉동 도나우타운 현장

- 북부경찰서
- 광주현대병원
- 롯데 하이마트
- 용주초등학교
- 농협
- 전남대학교
- 광주은행
- 전남사대부설 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용봉초등학교
- 도나우타운 모델하우스
- 전대사거리

M/H 전대사거리 모야엘가 주택전시관 2층